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rnflower@buddhapia.com

불서가 대중문화에서 해탈하는 길

‘찬 가을 한 자락이 은은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고마운 일이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 골판에 조항미 시인의 시 ‘국화차’ 한 구절이다. 한 자락 바람에 마음도 얼어붙는 듯 문화 공황기인 요즘 한 권의 예서(愛書)를 품은 지인의 만남이 그리웠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남북통계에 따른 전국 출판물 발행부수 현황에 의하면 2007년 신간 발행부수는 월평균 1217만 부인 반면 2008년 9월 평균은 961만 부이다. 작년 대비 무려 22% 감소, 출판업계의 불황을 극명히 드러냈다.

불교출판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인생을 통찰한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1999), 마음의 평화와 얻는 지혜가 담긴 탁남한 스님의 명상집 <화>(Anger)(2002)를 잇는 스테디셀러가 없다는 지적도 묵은 아쉬움이다.

자기계발, 성공학, 경제경영에 대한 관심이 주류인 이때 <시크릿> <긍정의 힘> <내려놓음> 등 불교소재 자기 계발서를 개신교에서 앞 다퉈 출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국내 개신교계는 번역만으로도 어부지리 선교에 벼를 입었다.

불교출판 관계자들은 ‘필진의 토양 부족’을 불황의 원인으로 꼽지만, 기획력 발휘에 실패한 결과물은 “읽을 책이 없다”

는 구매 기회를 초래했다. 불교대학 출신 지식인들의 필요에 부합되지 못한 탓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에 의한 간화선 풍토도 불서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제양상’ ‘역경’ ‘포교’라는 종단 3대 사업의 과제에 전면적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교출판 활로에 귀감이 되는 사례는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이다. 저서 <연젠가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2007년 4월 초판 이후 13쇄 됐고 3만 부 이상 판매 수익을 올렸다. 웰다잉(well-dying) 시류에 부합, 평상심으로 에세이로 풀었다. 불교TV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영화와 선(禪)을 접목해 시의에 맞는 기획과 대중이 원하는 주제를 기폭제가 됐다.

독서는 고단한 삶으로부터 참나를 찾는 보물지도다. 심도 깊은 기획력으로 대중문화와 교감하는데 문화와 에세이는 탁월한 장르다. 인간 본연의 정서로 포용 가능한 순수 창작 영역인 이 유다. 종단의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인의 왜곡된 불교를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불교계 시대 누구나 쉽게 부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해안의 불서야말로 불법의 감성 멘토에 의한 해탈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디피아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온라인서점 예시아온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수계일부부터 4년 합산하라”

승개추, 승랍기산법 변경 등 ‘승려법’ 개정 촉구

“사미와 사미니는 예비승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식 승가의 일원이 돼야 한다.”

조계종 제6회 3급승가교시 및 연수교육 수료스님들이 승랍기산을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간 4년을 합산해 기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여 스님들이 참여한 승려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승개추)는 10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조항은 불합리한 만큼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간 4년을 합산하여 기산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총무원과 중앙총회에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승랍 11~14년 스님 실종 =1999년 12월 개정된 승려법에 따르면,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할 반면, 1995년 이후 출가자는 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출가자는 올해 승랍이 15년이지만, 1995년 출가자는 전문교육을 최단기간에 수료하더라도 승랍이 10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승랍 11~14년에 해당하는 스님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 등 중앙총무기관과 교구본사 등에서 국장급 소임을 맡을 인적자원이 부족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구본사는 국장급 소임자를 구하지 못해 승랍 10년 미만자로 채우는 편

까지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총무기관 국장급은 승랍 15년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어 교구본사보다 5년 늦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승랍기산을 변경하거나 소임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0대 돼야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소임 가능=최근 출가연령은 점차 고령화, 고학력화 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몇년간 평균 출가연령은 30대 중반이다. 현 조계종 법계에서 승랍 15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9년이 필요하고, 50대 중반에야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소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소임자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칫하다가는 중단행정조직 체제와 인적자원의 공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승개추는 “최근 조계종 인적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어 중단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행정성 문제로 인해 중단행정에 대한 불신과 승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한다.

#사미승도 상당한 출가승단=조계종 중현 제8호는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세·우바히)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와 사미·사미니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일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단 구성원으로 법적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인 셈이다. 승려법의 승랍기산 조항에서 사미니의 수행기간을 인정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는 사미니의 중단내 역할을 간과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태고종 등 타종단이 사미니를 정식 승려로 인정하는 현실과도 배치된다. 4년간 예비승려로서의 수행기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7-8년만에 정식 사제로 인정받고 선교에 나서는 이

웃 종교 성직자들과의 포교경쟁에 뒤처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중현에서 사미니를 중단구성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미니에 관련된 중법은 해석에 따라서는 중현에 위배된 효력 없는 중법이 될 수도 있다. 중앙총회는 사미니를 중단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 중헌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반째 이월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800여 스님들이 ‘승랍기산 시점을 사미니(계)부터 해야 한다’는 승려법 개정청원을 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승개추 집행위원 도륜 스님은 “제6회 3급 승가교시 및 연수교육 수료자 일동은 종단의 미래에 위해 수행과 교육, 포교에 진력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며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중법체제로 인해 승가화합과 불교발전이 저해되는 점이 있기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승개추는 승려법 개정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앙총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11월 6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승가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한 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승려노후복지 대상 ‘65세 승랍20년 이상’

조계종 총회특위 6차회의서 결정, 정기총회 상정

고령화 되는 승가환경에 대비해 노후에 수행과 주거, 의료를 중단이 책임지는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이 마련돼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총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는 10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11월 6일 중앙정기총회에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세납 65세 이상 승려’이면서, 승랍 20년 이상인 비구·비구니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 지원과 노후연금보장 등 의료·교육 및 주거환경 보장을 골자로 한다.

6차 회의에서는 대상 중 ‘장로승려’ 부분을 ‘비구·비구니’로, 법적용 대상자를 50세인 출가상한연령을 고려해 ‘세납 65세 이상 승려’에 ‘승랍 20년 이상’을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승려노년복지 화두 타파할 때”

실상회 불교미래사회학,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개최



승려노년복지 체계의 확립은 청정승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틀이다. 10월 28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11월 6일 개최하는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 가칭 ‘승려노후복지법’이 상정 예정인 가운데 실상총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연구소장 법안)가 10월 28일 승려노후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한 달간 조계종 스님 756명을 대상으로 73.9%의 응답율(560명)을 보인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세미나 제1발제를 맡은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노후복지 미비가 개인재산 축적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노후복지시설 비구(니)·사미니 등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대책수립시 세분화된 생활보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서 수안 스님(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은 “세속의 핵가족화, 출가연령 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출가유지정책’ 차원에서 승려노후복지 방안이 모색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은 제3발제에서 원불교의 후생복지제도, 천주교의 공제회 등을 예로 들어 ▲승가복지재단 신설 ▲공적 의료보장 활용 ▲의료비 적립지원 등 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 가입률이 사미니 승려일 수록 저조해 미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종단원형 정기건강검진과 건강정보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택진 교수(왕원전대장례복지학과)는 “현재 화장법은 전통적인 다비장법이 아니라 일본식 화장법으로, 불교식 다비장법 정신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중앙종단차원의 다비장 보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사령

수: 박재원 편집국 사정담당 차장 2008년 11월 1일

조계종 총회의원

성묵 스님 입적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이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인 성묵 스님(사진)이 10월 30일 오후 7시 경 입적했다.



1988년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1년 자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법왕사 주지, 봉정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재원 기자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신임주지로 재추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후보로 현 주지 성웅 스님(사진)이 다수추천됐다. 10월 30일 직지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는 전체 140명 중 93명

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성웅 스님은 70표, 발매 스님은 20표를 얻었다. 손병헌 대구지사장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영광각, 강연대 영상각장사)

세시각 결가부좌의 즐거움

결가부좌의 수승한 공덕 | 길상좌(吉祥坐)와 함야좌(降魔坐)

불도의 행령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입장에서 전개한 대선지사 응수보살(龍樹菩薩)은 결가부좌가 참선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좌법(坐法)임을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 제7권에서 밝히고 있다.

모든 있는 법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전하여 피로하지 않다. 결가부좌가 좌선수행하는 선지식의 좌법이다. ... 결가부좌는 참선수행자의 좌법으로 깨달음(도법(道法))을 성취하는 좌법이다. 그래서 마왕(魔王)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 마왕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참선수행자의 그림만 보아도 두려움의 근심으로 불안해하는데 히말라야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선지식이 없는데 있어서 결가부좌의 좌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결가부좌연습 1 한기정화

결가부좌 연습에 들어갈 때 먼저 생명체의 주요 지점인 목 부위, 허리 부위, 무릎 부위, 발바닥 부위의 한기를 정화한다.

결가부좌연습 2 근육이완

근육이완 수련은 결가부좌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다.

결가부좌연습 3 완성자세

몸이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상호작용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아래로 발, 위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체근육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결가부좌 자세를 만들어갈 때 결가부좌의 움직임이 없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혈이 순환될 수 있게 된다.

결가부좌연습 4 한시간 결가부좌

완성자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한 시간 결가부좌와 관문을 통과한다. 모두 여덟 과정을 순서대로 수련한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인요즘과 가슴보기를 수련한 다음 이어서 도인요즘과 앞배보기, 도인요즘과 어깨배보기, 도인요즘과 명문보기를, 도인요즘과 팔배보기, 도인요즘과 무릎보기를, 도인요즘과 발배보기를, 도인요즘과 단배보기 순으로 수련한다.

결가부좌연습 5 두 시간 결가부좌

두 시간 동안 결가부좌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바닥부위 현상, 발목부위 현상, 교차부위 현상, 무릎부위 현상, 대퇴부위 현상, 고관절부위 현상, 허리부위 현상, 다리마루 현상, 가려움 현상, 호흡장애 현상, 상기중열 현상과 그 밖에 현상들에 상응한 대처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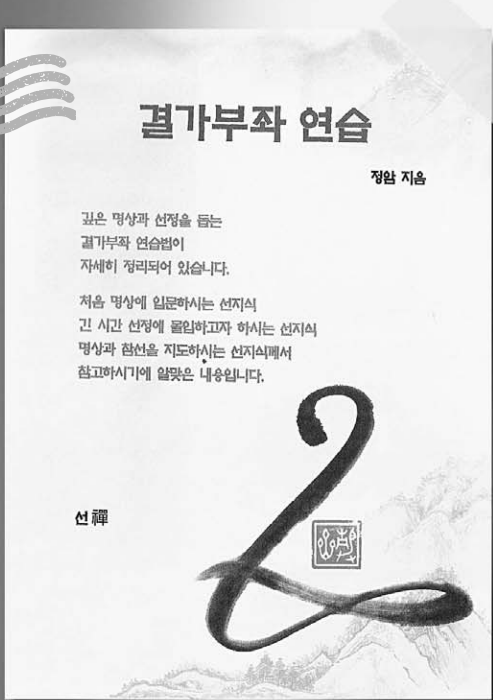
결가부좌연습 6 세 시간 결가부좌

현실의 고학력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결가부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된다. 마음가짐, 의식이 사물과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 그 속에 항상 분별상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본래면목이 확연히 깨어 있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세 시간 이상의 순일한 결가부좌 정진력을 성취하게 된다.



결가부좌 어깨서기와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의 정진자세는 바르게 앉은 자세를 주요 방법으로 어깨서기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 누운 자세 결가부좌, 엎드린 자세 결가부좌, 손 짚고 선 결가부좌, 엎밀이로 선 결가부좌, 옆으로 선 결가부좌 등 다양한 자세가 있다.



저자 정암 스님은 8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제방 선지식에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습다. 사십 여 년 동안 체득하고 연구하며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결가부좌를 할 수 있고, 세 시간 결가부좌를 성취할 수 있으며,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이 함께 하는 자재인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심신양생을 돕는 여덟 가지 불이양생법: 차운명상, 불이태극권, 차운요가, 장생도, 양생소, 불이경전, 유마선, 허두단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의 불이상사 연구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결가부좌 선양회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취하는 수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가부좌선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1회 결가부좌 삼일정진을 2009년 4월 18일 ~ 20일 불이양생치약산수련원에서 개최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선지식께서 동참하시어 결가부좌 정진력 향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가부좌선양회 회원일동 합창

■ 결가부좌 상담 : 채선 선생님 (한국불양생교육원장) 010-6720-2115

결가부좌선양회 www.결가부좌.com / www.shuangpan.com 전화 052)260-1636 / 팩스 052)261-163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7 박원길수학원 3F